

김무홍창작희곡집 안개주의보

안개주의보

가시덤불

악마들의 잔치

호우주의보

새가 되어라, 새가 되어라

수직환상

광문출판사



김문홍창작희곡집

첫번째 묶음

인계주의보
가시덤불
약미들의진척
호우주의보
새가 되어라
수가 되어라
수직환상

광문출판사

■ 저지후기

演劇에 발을 들여놓은 지 15년만에 첫 회극집을 내놓는다. 그동안 어질픈演技하라, 아줌잡은 演出하라, 돼먹지 않은 戲曲쓰라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동안 나는 잡놈이란 소리를 많이 들어왔다. 아제는 小説 쓰는 作家들 편에서, 오늘은 童話 쓰는 兒童文學 편에서, 또 내일은 演劇하는 劇團에서 흥길동처럼 번쩍 번쩍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곤 했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나에게 다 때려치우고 小説만 써라, 兒童文學은 폐업하려 하느냐, 네가 머물 곳은 演劇界인데 왜 한눈을 파느냐며 善意에 넘친 충고와 질책을 해주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빨을 갈았다.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想像力이 시위어지지 않는 동안은 능력껏 이것 저것 해보려고 몇 번이고 다짐을 했었다. 남 속이고 케진질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부끄러울게 있는나며 자신을 위로하곤 했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小説家, 童話作家, 劇作家라는 호칭이 내가 나타나는 관에 따라서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다. 남들은 하나도 끄공 앓는데 나는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 섭렵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고 어질픈 공지를 느껴 보기도 했었다.

戲曲을 쓴다는 일이 이처럼 어려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낀 적은 없었다. 現場(舞臺)에 갓이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창작된 회극은 演出者와 배우의 創造的 想像力과 여유를 싹둑 싹둑 잘라 놓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와는 달리 現장의 空間을 모르고 책상머리에서 창작된 회극은 그들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이 들을 調和한 상태에서 창작된 회극이 가장 理想的인데, 나는 그 둘다 옹기 해내지 못했으니 演劇人들에게서 욕을 얻어 먹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또한 戲曲은 寫眞을 통하여 수차례 수정되어야 하는데도, 내 作品들은 거의 모두가 初演으로 그치고 말아 많은 아쉬움과 안쓰러움을 남기고 있다. 건방지게 作品集을 엮어내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작품집에 실려있는 作品들이 劇團들에 의해 公演되는 과정을 통해 물매를 맞아,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돌아와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어질픈 것을 하느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대의 현실을 진실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作家로서의 自覺감과 自棄感 때문에 이렇게 성급하게 내던져 버리느지도 모른다.

한때 세상 사람들을 제법 웃겼던 모노 드라마 〈닭 잡아 먹고 오리발〉은 後日에 한번 더 웃겨줄 심사에서 작품집에서 빼 버렸다. 〈안개주의보〉를 제외한 모든 작품들은 나의 本郷인 教師劇團〈한새벌〉에 의해 公演된 것이다. 끝으로 나에게 演劇과 文學에의 길을 열어주신 母校의 은사이며 演出家이신 이충섭 선생님, 팔리지도 않을 책을 선뜻 출판해 준 오광채 사장님, 劇團〈한새벌〉의 가족 여러분, 원고 교정을 도와준 정경숙 선생님, 劇團의 후의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집을 은사이신 이충섭 선생님과 부산의 모든 演劇人들에게 바칩니다.

1987년 6월

—公演 演習場에서—

김문홍 창작회곡집 · 인개주의보

인 쇄 : 1987. 7. 1
발 행 : 1987. 7. 5
지은이 : 김 문 홍
펴낸이 : 오 광 세
펴낸곳 : 광 문 출 판 사
부산시 중구 동광동 4가 25 (새마당더빌 2층)
전화번호 : 463-6792
등록번호 : 제카 2-4
값 3,000

● 이 책은 부산직협시의 문화예술행정활동 지원금에서 출판비 일부를 보조받아 발간되었음.